



소개합니다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한국사회 성소수자들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시작합니다. 이 성애중심주의의 폭력에 맞선 성소수자의 정치는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차이와 차별을 넘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성소수자들의 자발적 언어를 꿈꾸며 성소수자들의 당당한 몸짓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의 힘과 지혜로 새롭게 쓰여질 한국사회 진보정치의 새문을 힘차게 열어 재끼고자 합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삶을 지향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성소수자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열정의 축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사회 성소수자 여러분입니다.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는

- ① 성소수자 공직 선거 후보와 정치인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 ②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구성권 논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성전환자 인권 확장 및 법제정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반 정치적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③ 한국사회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개인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성소수자 정치의 뿌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네트워크에 함께 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행동! 함께 꿈 꿍시다!

<http://cafe.daum.net/solidarityivan> ('acid77@hanmail.net' 로 가입신청 해주세요.)

절취선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네트워크를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성소수자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토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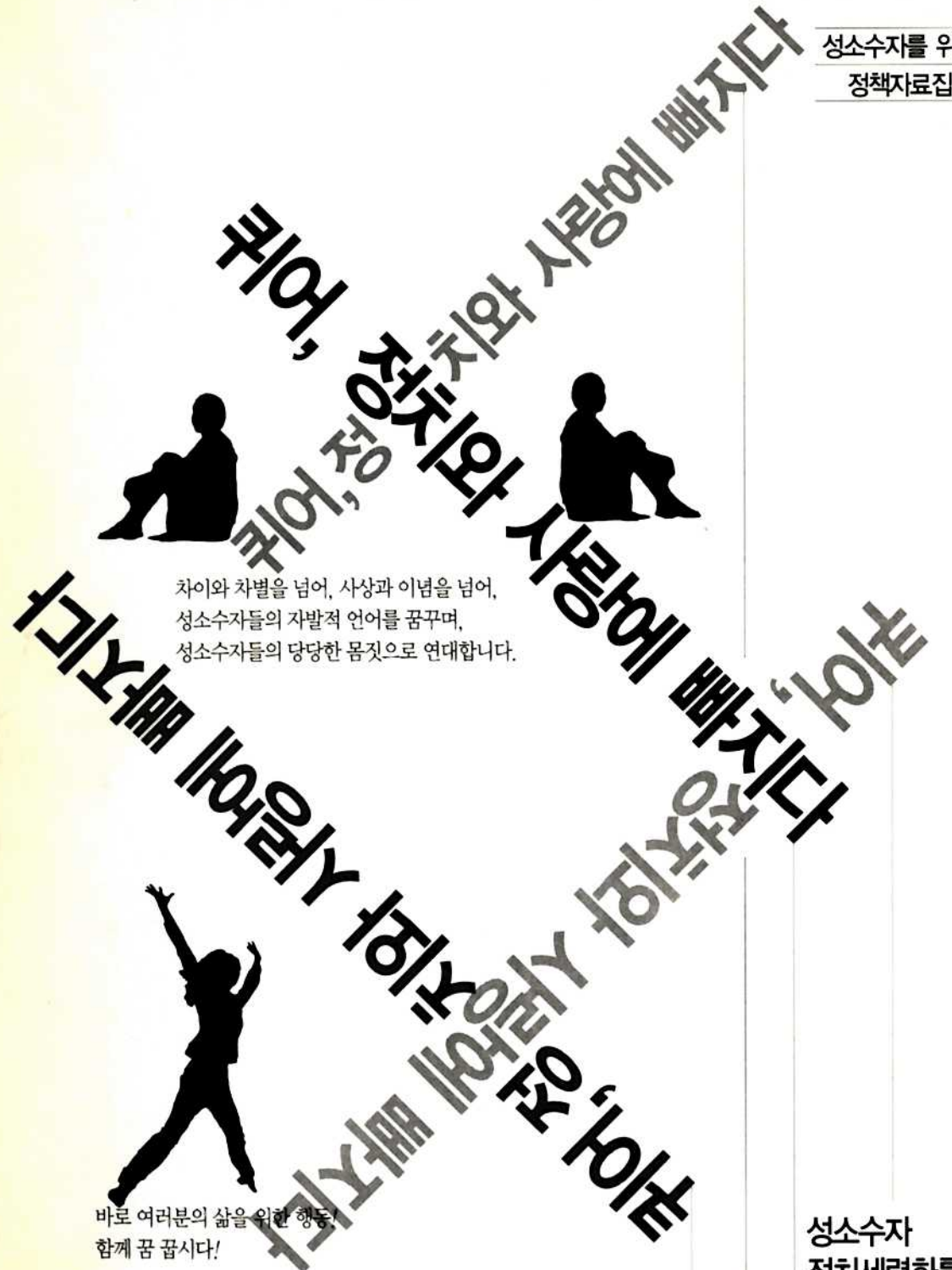
■ 후원 및 네트워크 참가 문의 : 010-3432-0208(블랙)

국민은행 468002-01-320015 (예금주 박기호)

■ 정치후원금이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합니다	입금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자료집



차이와 차별을 넘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성소수자들의 자발적 언어를 꿈꾸며,
성소수자들의 당당한 몸짓으로 연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행동!
함께 꿈 꿍시다!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자료집

퀴어, 정치와 사랑에 빠진다

차이와 차별을 넘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성소수자들의 자발적 언어를 꿈꾸며,
성소수자들의 당당한 몸짓으로 연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행동!
함께 꿈 꿉시다!

성소수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왜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인가

동성애를 질병이라 부르는 호모포비아 대통령에 맞서는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소동으로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대로 공격을 받아도 되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이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은커녕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삼등시민이 성소수자들입니다.

다행히 차별금지법에 분노한 많은 성소수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매번 자발적으로 100여 명이 상씩 모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개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이다시피 길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인시위도 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 회 초대 의장과 면담하고 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에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국회의원 한 명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몇몇 인권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걸고 맞짱 뜰 성소수자 한 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부르는 호모포비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극우 개신교를 비롯한 보수 세력은 호모포비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내년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 올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동성애자에 대한 공격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권이 1988년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가족관계인 것처럼 용인하는 교육을 불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레이건의 집권 이후 사회의 보수화와 더불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이를 정치권에서 고발하고 막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기세가 등등해진 보수주의자들의 폭력에 맞설 성소수자 국회의원 한 명이 더욱 시급한 때입니다. 단지 국회에 한명의 성소



퀴어, 정치와 사랑에 빠지다

수자 국회의원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는 성소수자 국회의원은 단지 국회의원 299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통령과 전체 국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에 맞서 성소수자 정치를 벌여내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결코 꿈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에 맞선 성소수자의 정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의회는 2001년 이미 동성커플에게 전통적 가족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지낸 아일랜드의 전 대통령 메리 로빈슨을 비롯한 수많은 저명한 인권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모여서 동성애자들의 동등하고 보편적 인권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이미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녀가 호모포비아 대통령과 국회에 도전장을 던지려고 합니다. 성소수자의 삶과 인권을 방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이 첫걸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가족의 지위 확보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을 보장

- 동성애 커플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한부모가족·조손가족·동거가구·비혈연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법·제도는 여전히 전형적 핵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공동체를 꾸려가는 가족들은 배제되거나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 동성애커플, 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에 준하는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 ⇒ **동성결혼합법화찬성(95%) / 동성혼은 당연한 권리(60.2%) / 합법화되면 동성과 결혼할 생각 있다(56.8%)**
(2007년 실시, 한국성소수자사회의식조사)¹⁾

〈전 세계 동성결혼 및 파트너십 현황〉²⁾

지역범위	시민결합	동성결혼 이전 시민결합인정	동성결혼
전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네덜란드(2001) 벨기에(2003) 스페인(2005) 캐나다(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우루과이(2007) 타국 동성 결혼 인정국 이스라엘(2006) 아루바(2007)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제도(2007)
	스웨덴(1995)	그린란드(1996)	
	아이슬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2005)	
	안도라(2005)	체코공화국(2006)	
	슬로베니아(2006)	스위스(2007)	
	콜롬비아(2007)		
	비등록 동거		
이스라엘(1994)	헝가리(1996)		
크로아티아(2003)	오스트리아(2003)		
일부	미국(1997)	아르헨티나(2003)	매사추세츠주(2004)
	호주(2004)	브라질(2004)	
	이탈리아(2004)	멕시코(2006)	
		스페인(17개 지역 중 12지역)(1998)	
		캐나다 (QC, NS and MB) (2001)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일부 보수기독교계의 반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성별정의규정)"이 삭제되었음.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임.
-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가시화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 외에 전반적인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으로서 요구됨.

⇒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로서 성소수자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

⇒ **별도의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 필요(매우 그렇다 53.3%, 그런 편이다 27.4%)**

(2007년 실시, 한국성소수자사회의식조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등 해외 입법례〉³⁾

해외입법례	국제협약 등
· 미국(일리노이주(2005년) 등 14개주)	·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CPR)의 "성(sex) 차별금지"에 "성적지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Nicholas Toonen vs Australia)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차별금지에 "성적지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평 · 한국정부 1991년에 홍콩의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누락한 것에 대한 유엔경제사회문화위원회의 경고에 동의 · 유엔인권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권고(한국 등 53개국 서명)
· EU[암스테르담조약(1997년), 78호지침(2000년)]	
· 프랑스(차별금지 및 혐오적 표현금지, 2004년)	
· 영국(차별금지법, 2007년)	
· 캐나다(인권법, 1997년)	
· 호주(북부주차별금지법(1992년)등)	
· 뉴질랜드(인권법, 1993년)	
· 아일랜드[고용평등법(1998년), 평등지위법(2000년)]	

1)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의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기획단을 구성하여 387명의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6년 10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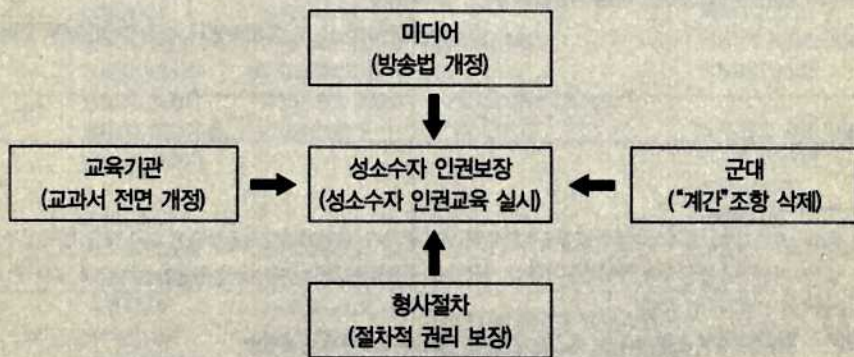
2) 이종현, 2007. 6.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워크샵 자료집에서 재인용

3)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2007. 11. 8. 기자회견 자료 참조.

미디어 · 교육 · 국방 · 형사절차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희화화되기 일쑤임. 이러한 언론 · 방송의 태도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음.
- 제도 교육 또한 이성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비정상적 존재, 아예 없는 존재로 간주함.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정체체성에 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차별의식을 내면화**시킴.
- 군대의 몰성소수자적 인식, 남성중심적 폭력 문화 역시 심각함. 심지어 국방부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통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성폭력 범죄나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 혐오범죄를 당해도 사법절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수사 ·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임.

- “ ·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령에 성소수자인권보장에 관한 규정 마련
·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 개정
· 군형법 “계간” 조항 삭제 등 동성애자 차별적 법령 즉시 개정
· 각종 형사절차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
· 언론, 교육, 국방, 수사, 재판기관 담당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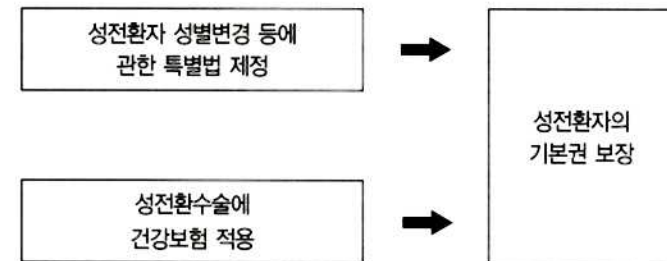
- 2007년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으나, 성년일 것, 성기성형과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별변경 요건을 좁게 설정하고 있음. 이는 다수 성전환자들의 요구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임. **성전환자들의 실제 요구에 맞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필요.
- 성전환수술 비용은 성기성형수술만 약 1000~2000만원에 달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방성형, 목젓수술 등 미용성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수술 전후 장기간 호르몬 치료와 우울증 등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수술 및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이미 유럽인권법원은 성전환수술 및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시 직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Sex-Change Benefits)을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음.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필요 : 매우 그렇다 46.6%, 그런 편이다 31%

⇒성기성형 요구하는 대법원 지침은 부당하다 : 매우 그렇다 36%, 그런 편이다 24.3%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 매우 그렇다 43.6%, 그런 편이다 29.8%

(2007년 실시, 한국성소수자사회의식조사)





성소수자 정치인을 후원하는 미국 단체 Victory Fund에 따르면 북미에는 521명, 유럽에는 118명, 호주에는 12명, 그리고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각각 1명의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현직 공직자들이 있다. 한국에서도 아래의 사례들과 같은 성소수자 정치인이 등장해서 성 소수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프랑스 |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 현 파리 시장



2001년 3월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파리 시장으로 선출된 인물. 사회당 소속인 베르트랑 들라노에는 최초의 좌파 파리시장이기도 하다. 겸손하고 소박하며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2000년 좌파 파리 시장 후보로 유력시돼 온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재무장관이 부패스캔들 연루 혐의로 실각하고 자크 랑 교육장관이 입각함에 따라 예정에 없이 2001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의 파리시장 후보로 나서게 됐다.

'시대를 바꾸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그는 생활과 밀접한 조그만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인기를 얻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교통량을 조절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차비 경감, 파리의 골치거리인 개똥 청소, 젊은 실업자들의 학교 교통 정리 투입, 탁아소 증설 등 파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현안들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지지 세력을 넓혀왔으며, 마침내 파리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영국 | 제니 베일리(Jenny Bailey) / 영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시장



최근 케임브리지 시장에 선출되어 영국 최초의 성전환자 시장이 되었다. 올해45세인 베일리 시장은 30대시절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리들이라는 동거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자녀 두 명은 그녀가 남자였던 시절 얻은 아이들이다. 베일리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리들 또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는데, 베일리-리들커플은 성전환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시의원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베일리는 환경과 소수자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시의원 재직시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시장' 으로 기록된 베일리는 향후 시장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독일 | 볼커 벡(Volker Beck) / 녹색당 국회의원 총무



"동성애를 성교육 시간 외에 예컨대 역사 시간에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성애 박해사를, 독일어 시간엔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 '혼란스런 감정' 을 강독하는 등 다른 과목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독일과 유럽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벡 총무는 현행 성교육에선 동성애의 기본 개념만 언급하고 있으며, 학교에선 '암태지 같은 (더러운) 동성애자 자식' 이라는 욕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프랑스인 애인과 결혼 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성애자들의 시위에 가담하는 등 유럽에서의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진은 모스크바 시위 당시 이성애자 군중에게 폭행 당한 모습이다.

핀란드 |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 핀란드 대통령 (이성애자)



인권과 소수의 권리 옹호, 복지 우선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2000년 1월 치러진 핀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5년 임기를 마친 뒤 2006년 1월 2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여러 부처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란드 사회민주당 소속으로서 노동자의 이익과 복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980년대 남성동성애자 협회 회장을 맡아 동성애자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 핀란드 국민들에게 '약자의 옹호자' 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취미는 미술과 음악, 수영 등이며 핀란드어를 비롯하여 스웨덴어, 영어, 독일어에 능통하다.

미국 | 하비 밀크(Harvey Milk) / 미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정치인



밀크는 1977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서는 최초로 공직자인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됐다. 소수자 문제 뿐 아니라,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성애자들이 다수 모여 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듬해 이를 이해하지 못한 동료의원에게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비 밀크의 사후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의 레즈비언, 게이들이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행진을 하였으며, 이 때 무지개 깃발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하비 밀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하비 밀크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그가 평생 꿈꾸었던 동성애자센터가 건립되었다.

일본 | 오츠지 카나코 / 일본 최초의 레즈비언 의원



오츠지 카나코는 일본 최초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정치인이다. 그녀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의회 선거에 출마, 오사카부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07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로 참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이성애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일본 주류 사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카나코 전 의원은 오사카부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원래는 이성애자 커플만 살 수 있게 한 공공주택에 동성애자 커플이나 친구 등의 비혈연 가족도 살게 하도록 했다. 그녀는 또한 커밍아웃을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カミングアウト~自分らしさを見つける旅)을 통해 레즈비언 정치인으로서의 존재를 알렸다.

캐나다 | 리비 데이비스(Libby Davies) / 캐나다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데이비스는 캐나다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다. 그녀의 관심사는 성 소수자 문제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동부 밴쿠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녀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빈민 문제, 주택 문제, 공공 안전, 양육 문제 등에 대해 데이비스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이러한 진보적인 정치관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 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대학을 중퇴한 경력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재 데이비스는 그녀가 속한 신 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원내 총무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그녀는 동성 파트너 김벌리 엘리엇과 함께 지내고 있다.

멕시코 | 파트리아 지메네즈(Patria Jimenez) / 멕시코 국회의원



파트리아 지메네즈는 멕시코 헌정 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다. 진보 정당인 민주혁명당(Party of Democratic Revolution) 소속 의원인 그녀는 선거운동 당시 당당하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HIV/AIDS 문제 해결과 같은 공약도 내세웠다. 지메네즈는 이처럼 과감한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반대편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기독교가 뿌리 깊이 자리한 나라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었다. 지메네즈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성소수자 인사로 꼽히고 있다. 그녀는 멕시코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 'El Closet de Sor Juana' ('후아나 자매의 벽장'이라는 뜻)을 장기간 이끌어오며 LGBT인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탈리아 | 블라디미르 럭서리아(Vladimir Luxuria) / 이탈리아 국회의원



블라디미르 럭서리아는 유럽 연합 내에서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의 조지나 베이에 이어 두 번째 성전환자 정치인이다. 그녀는 성 노동자·배우·유명 방송인을 거쳐 정치인이 되었다. 선거가 치러질 당시 그녀는 반대당으로부터 '변태 동성애자 (faggot)'이라는 비방과 흑색 선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공산주의 재창조당(Communist Refoundation Party)의 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동료 여자 의원의 말을 듣고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 우지 이븐(Uzi Even) / (전) 국회의원



게이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 국회에 입성한 우지 이븐은 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일이 있다. 그는 또한 직장에서 파트너 관계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불평등한 상황을 묵인하지 않았다. 그는 1993년, 동성애 병사의 합법적인 군복무를 주장하여 이스라엘 정부로 하여금 군내 동성애를 허용하게 했다. 한편, 1995년에는 직장에서 파트너관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주와 싸워 마침내 권리를 얻어냈다. 부당함에 맞설 줄 아는 용기를 바탕으로, 그는 당당하게 2002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현재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이븐은 지금도 동성애 인권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다.

헝가리 | 가보르 체티(Gabor Szetey) / 인적 자원부 장관



“나는 가보르 체티입니다. 나는 유럽인이고 헝가리인입니다. 나는 하느님과, 사랑과 정의와 평등을 믿습니다. 나는 헝가리 정부의 인적자원부 장관입니다. 경제학자, 인적 자원 관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파트너, 친구, 혹은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게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 12회 LGBT 영화, 문화 페스티벌은 가보르 체티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으로 시작되었다. 그 하루 뒤, 같은 도시에서 열린 LGBT 프라이드 행진은 반 동성애자 단체들의 공격을 받았다. 아직 호모포비아가 퍼져있는, 탈 공산국가 헝가리에서 가보르 체티의 발언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지 가늠하게 하는 사건이다. 체티가 장관에 임명된 해, 헝가리는 동성애, 이성애 커플 모두를 포함하는 파트너쉽 법을 통과시켰다. 동성애 혐오자들의 움직임도 헝가리 내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이라는 큰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호주 | 루이즈 프랫(Louise Pratt)



호주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정치인 루이즈 프랫은 2008년부터 서 호주(South Australia) 주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프랫은 그 동안 호주에서 성 소수자 인권 향상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실이 2002년의 '레즈비언게이 관련 개정법'(Lesbian and Gay Law Reform Act)으로, 이 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을 허용하는 등 호주 LGBT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프랫은 LGBT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